한의학의 눈, 몸과 마음은 본래 '하나'

민족의학 시리즈 1. 한의학의 본질

그동안 한약분쟁은 일반인들에게 이전투구의 모습이상으로 비치기는 어려웠다.

그래 한의학은 우리고유의 의학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민족의학으로 인정받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신문은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역사와 본질을 밝히자는 의도에서 민족의학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백 상 룡

〈한의학과 박사3기〉

인간이 만들고 발전시켜 온 모든 학문에는 그 사고의 뿌리가 되는 철학이 있기 마련이다. 철학이 학문의 속성과 내용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학문의 본질이나 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시대의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 두 사고체계를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이라 한다면 너무 좁은 견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나의 좁은 소견으로 한의학의 구성체계를 설명하려 할때 한번쯤은 짚고 싶은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실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학이 어떻게 동서양에서 다르게 발전해 왔는가를 단지 의학의 이론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기와 음양오행 한의학의 구성체계

동양철학의 두 축은 기(氣)와 음양오행(陰陽五行)이다. 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본질이며, 음양오행은 기가 변화해서 사물을 이루고 다시 소멸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체계이다. 기는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원자(atom—고전적인 의미)와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는 사물을 구성하는 구성원소가 되면서 동시에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 발전해가는 능력이 있다. 즉 기는 단순히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일 뿐만 아니라 안에 동력으로서 스스로 살아서 활동하는 것이다. 음양은 사물의 본질이나 속성, 상태 등을 시공(時空)에 따라 둘로 나누어보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겨울은 기온이 낮고 사물들이 응축되고 활동을 쉬는 계절로 여름에 대비되어 음이 되며, 여름은 기온이 높고 사물들이 펼쳐 있고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겨울에 대비되어 양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음양의 구분은 결정되어지 것이 아니라, 그 비교대상이 바뀜에 따라 달라진다. 오행은 사물의 생성에서 발전, 소멸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목(木)은 사물이 외부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를 말하며, 화(火)는 사물의 외형적으로 번성하는 단계, 금(金)은 번성을 마치고 움추리는 단계, 수(水)는 활동을 몸추고 쉬는 단계이다. 이러한 오행의 개념은 사계절의 기후와 생물의 변화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봄은 목에 속하는 계절, 여름은 화에 속하는 계절 등이다.

이러한 기와 음양오행의 개념은 살아있는 사물, 즉 생명체와 무생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단지 생물체는 그 변화를 지배하는 힘의 근원을 내재한 것이며, 무생물체는 힘의 근원이 외재한다는 차이점뿐이다.

한의학의 모든 구성체계는 이러한 기와 음양오행의 논리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생리부터 살펴보자. 사람은 정신과 정신이 머무는 육체로 나뉘어진다. 육체는 다시 크게 오장육부와 십이경락, 근골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정신과 기의 활동에 의해서 하나의 유기체로 통일되어 있다. 여기서 기는 앞에서 논한 기의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력이란 의미가 더 정확할 것이다.

서양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체대사를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의 분화된 역할로서 규정짓는다. 기는 그 역할에 따라 양기(陽氣), 음기(陰氣), 위기(衛氣), 영기(營氣)등의 다른 이름과 속성을 가진다.

오장육부는 한의학의 모든 특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장과 부가 표리(表裏)를 이루어 오행의 속성에 따라 간과 담은 목에 속하여 목(木)의 장부, 심과 소장은 화(火)의 장부, 비와 위는 토(土)의 장부, 폐와 대장은 금(金)의 장부, 신과 방광은 수(水)의 장부등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오장은 오신장(五神藏)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장이 정신활동의 직접적인 주재자임을 나타낸다. 이는 장을 단순히 폐, 간과 같은 장기(臟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활동까지도 오장의 작용으로 보는 것으로, 육체와 정신을 하나의 틀로 일치시키는 한의학 고유의 사고이다. 또 인체의 내부에 위치한 장부는 형체를 구성하는 근(筋), 골(骨), 피(皮), 육(肉)과 오관(五官)에 이르기까지 경락(經絡)을 통한 연결과 기혈(氣血)의 운행을 바탕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분화된 조직이나 기관의 합성체가 아닌 유기적으로 통일된 생명체를 형성한다.

변증논치 한의학 고유의 치료방법

십이경락은 기가 흐르는 통로로서 안으로는 오장육부, 밖으로는 사지말단까지 분포해 있어 오장육부의 작용이 전신을 통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극을 오장으로 전달하는 작용을 한다. 또 경락에는 경혈(經穴—속어로 혈도라고도 함)이 있어 내부의 변화를 외현시키고 외부의 자극을 수용한다. 따라서 오장육부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질병이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장부를 다루지 않고도 단지 그 장부나 특정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경락이나 경혈만을 자극하여 치료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육체, 또 육체를 구성하는 조직이나 기관 등을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병의 발생원인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도 그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시력저하를 예로 들어 보자. 서양의학에서는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시력과 관계되는 시신경이나 수정체등 눈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의 이상유무를 주대상으로 보고 진단, 치료한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눈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오장중에 간의 상태를 먼저 살핀다. 왜냐하면 눈이 비록 하나의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인체의 각 부분과 상호작용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오장중에 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구조를 하나로 묶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변증논치(辨證論治)가 있다. 변증논치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증상을 취합, 분석하여 하나의 증(證)으로 귀납시킨다음 그에 알맞는 치료방법을 찾는 것이다. 변증논치의 특성은 개개의 질병(감기, 위암 등)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그 질병의 사람에 따른 증상의 차이와 정도를 분석해서 그에 알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특정 질병에 대한 특정 치료체제보다는, 그 환자와 질병과의 상관관계속에서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치료방법과 치료체제를 선정함으로 인해 질병만을 가지고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같은 질병에 다른 치료방법, 다른 질병에 같은 치료방법이 선택되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금까지 한의학이 갖고 있는 구조와 특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몇마디 말로 한의학의 특성을 설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고, 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도 있지만, 현재의 한약분쟁이 한의학이 갖고 있는 틀을 무시하고 서양의학의 관점에 한의학을 끼어 맞추려는 편견의 소산이라 볼 때,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의학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치료체제
특정 질병에 대한 특정 치료체제 서양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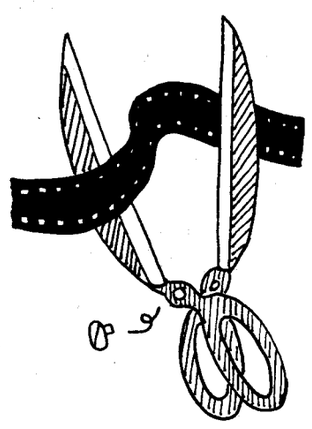
글 싣 는 순 서

1. **한의학의 본질**
2. 개항이후 한의학 수난사
3. 한의학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세시봉

구영준 취재부장

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에 부쳐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폐지됐다.

86년과 95년 영화법이 두차례나 개정되면서 검열제가 심의제로 바뀌었지만 그동안 '검열'이냐 '심의'냐를 놓고 영화계와 당국이 논란을 벌였고 헌재는 '검열'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헌재가 공윤을 국가기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문체부 장관이 공윤위원을 위촉하고 공윤이 정부예산으로 운영된데 기인한다. 따라서 음반이나 연극에 대한 심의권이 없는 공윤이 영화심의 권한마저 상실해 존립근거가 없어졌다.

그간 공윤의 사전심의는 명분상 '영화가 흥행을 위해 과도한 성이나 폭력묘사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정치현실이나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영화 표현의 자유를 짓눌러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적인 예로 이번 헌재 판결의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92년 사전심의없이 상영해 불구속기소됐던 영화사 '장산곶매' 대표 강헌씨의 '닫힌 교문을 열며'를 들 수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음란, 폭력 영화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 검열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해 등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등급제 민간자율기구가 영화를 심의하되 가위질은 하지 않고 관람 허용 연령을 판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PP(모든 연령 관람) △PG13(13세 이하 부모 주의) △R(17세 미만 보호자 동반) △NC(17세 미만 관람불가) △X(포르노)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등급을 못받는 영화(미국의 경우 X등급)는 아예 유통단계에서 제거해 버리면 된다. '등급외'로 결정되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가 금지되어 관객을 모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관객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영화의 작품성 문제는 이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헌재의 진일보한 판결로 앞으로 영화심의를 위한 민간자율기구가 설립되고 등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반 법률의 개정이나 기구의 독립성, 완전한 등급제 등이 영화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삭제가 아닌 영화 수입업자나 극장주에 의한 자의적인 가위질도 막아야 할 것이다. 하루에 영화를 몇 번 더 올리거나 권력에 알아서 기는 방법으로 영화를 잘라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문화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판결이 빛을 바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할 때다.

한의대 사태 상황개요

93년 3월	약사법 약국내 재래식 한약장 설치 금지 조항삭제 공포
	4천여 전국 한의대생 수업거부, 학년제 유급 학칙에 의해 집단 유급
9월	교육부, 학년제유급을 학기제로 변칙 승인. 유급분은 계절학기로 충당
94년	교육부, 학기제 유급을 다시 학년제 유급으로 변칙
95년 9월	보건복지부, 한약학과 약대내 설치 발표
	4천5백 전국 한의대생 수업거부시작
12월	교육부, 학년제 유급을 다시 학기제 유급으로 변칙
96년 2월	4천5백 한의대생 1학기 유급
3월	무조건 수업복귀
5월	14일, 19일 치뤄질 한약조제자격시험반대 4천5백 한의대생 총투표실시. 다시 수업거부 돌입
	교육부, 학기제 유급 다시 학년제 유급으로 개정
8월	1학기 수업일수가 끝나는 31일 맞아 연속2회 유급시 재적 학칙에 의해 제적위기
	교육부, 수업복귀의사에 비춰 학칙개정 승인 여부 결정 입장 표명
	전한련, '한약조제시험 부정규명' 및 '무효화와 근본적인 한의학 발전대책'없는 한 수업거부 지속 입장 고수
	학교, 학생·학부모에게 개별적 등록권유
29일	제적인원 717명중 169명 등록
31일	교육부, 등록기간 9월16일로 연장. 미등록자 선별제적조건으로 학칙개정 승인
9월11일	우리학교 한의대생 등록거부지속에 관한 총투표실시. 재적인원 717명중 450명 투표, 이중 362명 찬성, 등록거부 지속 결정. 미등록자 선별제적시 자퇴결의
16일	교육부 최종 등록시한 17일 정오로 변경
17일	교육부, 제적여부 결정을 각학교측에 이임.
	우리학교, 최종등록시한 30일로 정함. 등록률 62.1%
30일	우리학교 81명 미등록
10월 1일	우리학교 한의대교수 52명 전체 교수회의실에서 미등록 학생들의 등록금 대납결정, 학교, 최종등록기한 지나 접수 거부
2일	학적변동보고시한, 우리학교미등록81명 제적확정 교육부, 한의대 개설대학 국고 보조금 삭감 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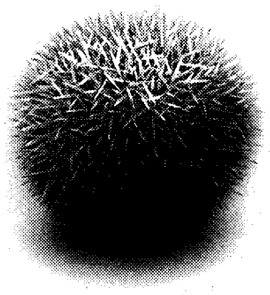
우와 강적이다, 강적 !!
어디서 저런 괴물이 나타났지?

배낭여행은 대학 1학년 여름방학때 마스터했고
연애?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없다나?
군대에서 죽을 고비 넘기고 다시 태어난 몸.
인터넷? 펜트하우스가 안방!
물론 백악관도 루브르박물관도 다녀왔단다.
술? 저게 사람이야 술통이야~~
영어회화? 웃는다! 일어까지 줄줄 꿴다.

선배보다 더 튀는 놈!
선배보다 더 독한 놈!
우와~긴장된다! 큰일났다!!

대학시절, 안해본 게 없는 사람, 지금부터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젊은이를 찾습니다.

더 지독한 놈을 만났다!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서울, 경기:**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5(동양종합금융빌딩) 동양그룹 인력관리위원회 (02)757-6326,7 **부산권:**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부신무체국빌딩 8층) 동양증권 부산중앙지점 (051)464-6284 **대구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559-10(보은빌딩 2,3층) 동양증권 대구지점 (053)742-0600 **광주권:** 광주시 북구 북동 290 (조흥은행빌딩 5층) 동양생명보험 광주영업국 (062)527-1323,4 **대전권:** 대전시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빌딩 3층) 동양생명보험 서부관리단 (042)534-4810

동양그룹 신입사원모집

1. 회사별 모집학과

계열 / 회사 / 학과	제조				금융								무역 유통 건설			정보 통신		연구개발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동양산업기계	동양토탈	동양증권	동양종합금융	동양생명보험	중앙투자신탁	동양카드	동양할부금융	동양선물	동양파이낸스	동양글로벌	동양해운	동양시멘트/건설	동양SHL	오리온카툰네트워크	동양중앙연구소	동양중앙연수원
전학과					0		0				0		0			0			
상경	0	0	0	0		0		0	0	0		0			0			0	
법정	0	0		0		0		0	0	0				0	0				
인문사회			0	0					0						0				
교육																			0
디자인		0															0		
기계	0	0	0	0											0				
전기	0	0	0	0											0				
전자		0													0			0	
건축	0														0			0	
토목	0														0			0	
산공		0																0	
화공	0	0	0															0	
무기재료	0																	0	
환경	0	0													0				
도시															0				
전산		0							0										
수학									0										
통계									0										
임산가공				0															

●시 멘 트 : 기계는 기계공, 기계설계학과, 자격증 소지자(대기, 화약류, 용접지질, 품질관리기사)우대
●매 직 : 디자인은 제품디자인, 전산은 CAD
●산업기계 : 인문사회는 러시아어학과, 기계는 기계공, 기계설계학과
●증 권 : 위탁영업직 - 전학과, 본사영업직 - 상경
●해 운 : 법정은 법학과
●오리온카툰네트워크: 디자인은 시각, 산업디자인(컴퓨터 그래픽)
●선 물 : 전학과(외국어 능통자 우대)
●S H L : 전산관련학과 우대
●연 구 소 : 석사우대

2. 응모자격
가. '68. 1. 1. 이후 출생자(대학원 졸업자는 '66. 1. 1. 이후 출생자)
나. 모집부문 해당학과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
다. 군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전형(1차, 2차) 다. 신체검사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 (당그룹 소정양식)
나. 추후 청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지참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자는 대학포함)
* 자격증 사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외국어 공인성적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96. 10. 14(월) ~10. 18(금) 09:00~17:00
나. 우편접수처: 100-192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동양종합금융빌딩) 동양그룹 인력관리위원회
다. Internet 접수: http://www.tongyang.co.kr

6.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된 우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력관리위원회 또는 각사 인사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력관리위원회 ☎(02)757-6326,7(모집기간까지 가동)

동양그룹 제조·식품 동양시멘트 동양제과 동양매직 오리온프리토레이 동양산업기계 동양토탈 금융 동양증권 동양종합금융 동양생명보험 중앙투자신탁 동양카드 동양할부금융 동양창업투자 동양투자자문 동양선물 동양파이낸스 무역·유통·건설 동양글로벌 동양해운 동양마트 동양시멘트/건설 정보통신 동양SHL 오리온카툰네트워크 공익 서남재단